

재외동포협력센터 초청장학생, 모국의 역사문화·발전상을 배우다

- 30개국 114명의 장학생 5일부터 1박2일간, 공주·군산·익산 일대 방문

- 전통문화 체험 및 근현대 역사유적지 견학 통해 한국의 문화·경제·사회 발전상 체험

-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(센터장 김영근)는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'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·발전상 체험'을 시행했다.
-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학(원)에서 공부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30개국 110여명이 참석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 유적지(공주·익산),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군산의 근대거리 등을 찾았다.
 - 주요 프로그램 ▲ 공주 무령왕릉, 왕릉원, 공산성, 군산 근대거리, 근현대역사박물관, 익산 미륵사지, 국립익산박물관 견학, ▲ 공주한옥마을 전통음식(다식) 만들기, 도자기 체험, ▲ 장학생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
- 또한, 장학생들이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후배간 고충과 조언을 나누는 지역별 네트워크링 시간도 가졌다.
- 재외동포협력센터 김영근 센터장은 "장학생들이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한편, 한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하고, 장학생 네트워크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- 장학생 서유나(카자흐스탄, 경북대)는 "처음 접해본 도자기 체험과 박물관 견학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새삼 느꼈고, 다양한 지역에서 온 재외동포 학생들과 친분을 쌓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"고 말했다.
- 센터는 장학생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동 행사를 연1회에서 상·하반기 2회로 확대 시행하며, 장학생 간담회·멘토링·봉사활동 등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.
- 붙임 : 초청장학생 역사문화 발전상 체험 사진.
문의 : 재외동포협력센터 홍보담당 석정민 차장, 02-3415-0193. 끝.